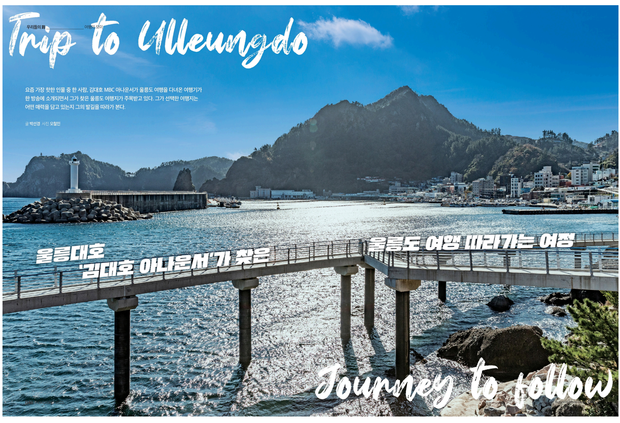

울릉도 개척의 역사가 살아있는 학포마을

신비의 섬' 울릉도는 천혜 자연경관인 해안 절경과 성인봉, 나리분지 등 관광명소가 많기로 유명하다. 울릉도 어딜 가든 동해 청정바다를 접할 수 있고 해안선을 따라 해안 비경을 즐길 수 있어 섬 자체가 힐링 명소이자 한 폭의 풍경화이다. 그중 울릉도에서 개척의 역사, 해안 절경 및 몽돌해수욕장, 아름다운 일몰로 유명한 학포(鶴圃) 마을은 김대호 아나운서가 하룻밤 머물며 매력에 깊이 빠져든 곳이다.

141년 전(1882년) 검찰사(檢察使) 이규원이 고종의 특명을 받고 육로와 해로로 11박 12일간 강행군한 끝에 6월 15일 첫발을 디뎠다고 기록한 '소황토구미'도 바로 학포마을이다. 이규원 검찰사는 해안가 암벽에 임오명각석문(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12호)을 남겼다. 각석문에는 '검찰사 이규원 최용엽 고종팔 유연우 임오오월일·檢察使 李奎遠 崔龍燁 高宗八 劉淵祐 壬午五月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그 주위로 몇몇 사람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울릉도 개척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울릉도에서 학포마을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더 크며 마을 주민들은 개척민의 후세임을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굽잇길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경관이 빼어나다. 포구로 내려서면 마을 좌우엔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고 무너져 내리며 만들어진 절벽이, 포구 앞엔 아담한 몽돌해변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마을 뒷산에 학이 앉아 있는 형태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학포'라 불렸는데, 비바람에 학의 부리 부분이 떨어지고 지금은 몸통만 남아 있다. 옛사람들은 학포에서 태하향까지 능선을 따라 길을 나섰으며, 지금도 이 옛길을 이용해서 태하향으로 가는 주민들이 있다고 한다. 도보 여행으로 울릉도를 찾는다면, 이 옛길을 걸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전국 백패킹 성지 학포 야영장

울릉도 여행의 또 다른 묘미로 떠오른 캠핑. 울릉도의 자연을 고스란히 품을 수 있어 캠퍼들이 꼭 한번 찾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학포 야영장이다. 김대호 아나운서도 울릉도에서 학포 야영장을 찾아 캠핑의 매력을 느꼈다. 학포초등학교 운동장을 캠핑장으로 만든 학포 야영장은 방송으로 자주 소개되면서 전국 백패킹 캠퍼들에게 명성을 얻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일 현장 예매만 가능했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서 운에 맡겨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11월 1일부터 온라인 예약으로 바뀌면서 이용이 편리해졌다.

김대호 아나운서는 갑작스러운 부슬비에도 "괜찮아, 이게 캠핑의 맛이지" 라며 초긍정 자연인 모드로 독도새우 회부터 해물 비빔라면, 만두 품은 오징어순대 등 '내 마음도 울릉대호' 풀코스 먹방을 펼친 것에 이어 독도새우 머리 튀김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을 먹었다. 다음 날에는 학포 바다에서 모닝 수영 후 라면수프와 누룽지로 끓인 '라죽'으로 아침 만찬을 즐기며 울릉도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시작했다.

학포 야영장은 몽돌해수욕장으로 유명한 학포항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몽돌을 닮은 듯한 10개의 캠핑 사이트가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다.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학포항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든다. 자연이라는 그림처럼 완벽한 것은 없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풍경이다. 부쩍 차가워진 초겨울 평일의 야영장은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날씨와 계절에 연연하지 않는 캠퍼 몇몇이 텐트를 치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에서 낭만이라는 두 글자가 겹쳐 보였다.

Tip. 예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울릉군은 10월 1일부터 서면 구암 '국민여가캠핑장' 및 학포에 위치한 '학포 캠핑장'(11월), 서면 남양리 우산국박물관 옆 '남서 캠핑장'(12월)에 온라인예약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예약 사이트는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은 이용 시기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예약은 최대 3박까지 가능하고, 오후 2시 입실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 퇴실하면 된다.

캠핑장 예약 바로가기

* 울릉군청 홈페이지 → 퀵링크(울릉군 캠핑장 예약) → 울릉군 학포 캠핑장 선택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바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몽돌해변을 감싸는 황홀한 일몰 학포항

울릉도 유일의 긴 몽돌밭을 보유해 해수욕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포항은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항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비탈진 숲길을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감춰져 있던 풍경은 작은 통로를 지나는 순간 그림처럼 나타난다.

겨울이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학포 해변은 캠핑 의자를 펼쳐 놓은 젊은 관광객들이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거나 스킨 스쿠버를 즐기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김대호 아나운서도 학포 바다에 뛰어들어 모닝 수영을 즐기며 온몸으로 매력을 품었다. 바닥까지 보일 듯한 투명한 학포 바다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시간마저 멈춰 버린 듯하다. 그 속에 몸을 맡길 수 있다면 누구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을 터이다.

학포의 매력은 해가 질 때면 더욱 진해진다. 골든아워에 접어들면 금빛 해가 마을의 모든 것을 감싼다. 더욱 붉고, 더욱 진한 해는 온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하고 수평선 넘어 모습을 감춘 후까지 학포에 잔상을 남긴다. 특히 학포 마을에서는 저녁노을과 함께 멀리 수평선 위에 펼쳐지는 강원도 쪽이 육안으로 자주 관측되면서 앞다퉈 인생샷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여행객의 '일몰 성지'로 불리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알게 되는 대목이다. 노을은 하루를 마감하는 안식을 허락하는 동시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이맘때,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 같다.

Tip. 여존 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학포항

황토가 많은 태화리보다 지역도 좁고 황토도 적다고 해서 '작은황토구미'라고 불렸으며, 2020년 학포항은 천부항, 옹포항, 태하항과 함께 여존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었다. 2023년까지 '울릉도가 숨겨놓은 비경을 찾아가는 학포항'이라는 비전으로 특산물 판매장, 향나무 휴게 공간, 해양전수 휴게 공간, 어항 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울릉도 여정의 시작과 끝 일주도로

울릉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도 길이 하나로 연결된다. 둥근 지구처럼 울릉도 해안도로도 둥글게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주도로는 울릉도의 시작이자 바로 끝이다. 도동~저동~내수전~섬목~천부~현포~태하~남양~사동~도동까지 이어진 총 49.8km의 일주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사이사이 삼선암, 통구미, 거북바위, 코끼리바위, 관음도 등 온갖 명소를 지나는데 차에서 멀리 관망하는 것이 마치 사파리를 닮았다.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가다가 멋진 풍경을 만난다면 잠시 멈춰 서는 것도 괜찮다. 꽉 짜인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여유이니 말이다. 현재 북면의 해안도로 중 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 신호등을 통해 차량이 교행해야 하는 구간이 몇 곳 있고, 터널 건설 공사 구간이 있어 승용차로 순환도로를 일주하려면 약 1시간 30분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Tip. 울릉도 여행, 알아두면 좋아요

1. '울릉군 알리미' 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울릉도 여행 시 '울릉군 알리미' 앱은 필수에 가까울 만큼 유용하다. 대중교통 운행, 기상에 따라 달라지는 배편과 관광지 개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차박 캠핑은 지정된 캠핑 장소에서 하세요.

향만구역 내 방파제,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는 항만법에 의한 불법 야영 행위에 속한다. 무엇보다 겨울철 울릉도는 파도가 높아 자칫 휩쓸려 갈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3. 문을 여는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울릉도는 겨울철 날씨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방문 계획이 있는 관광지 및 식당, 가게, 카페 등은 사전에 전화해서 개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헛걸음하지 않는다.